

광주 태평양희생자 유족 1천1백여명 일본상대 집단소송 결의

【광주=안관옥 기자】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광주지부(지부장 이금주·73·여)는 18일 일제 때 청신대. 징병희생자 유족 3백명과 강제징용됐다가 살아돌아온 8백여명 등 회원 1천1백여명이 피해

보상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준비와 대표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일본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방법판소에 정식 제소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부장 이씨는 "재일동포와 일

본인으로 구성된 '소송촉진회'의 협조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일본정부의 진사와 함께 대만희생자 보상의 전례에 비춰 1인당 1억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제기는 지난해 12월 유족회 본부의 희생자 36명이 제소한 데 이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두번째 소송으로 1천1백여명의 대규모 집단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光州유족회 對日 청구소송 공식제기

1992 01 19. 1992년 1월 19일
1천1백여명 대규모 집단소송 처음
물질을 정신보상까지 요구

【光州=鄭瑞鎮기자】태평양 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광주지역 유족 1천1백여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陳謝」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는 2월 도쿄지방법판소에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광주지부장 이금주씨(73·여)는 18일 일제 당시 청신대희생자 유족 4명, 포항. 강제징용진영을 당했던 군인과 군속 노무자 등 모두 1천1백여명이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에 제기된 소송은 지난 12월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본부가 모두 36명의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일본에 제기한데 이어 두번째로 제기되는 것이거나 1천1백여명에 달한 피해자에 대해 대법원에 있는 소송촉진회측의 협조를 얻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해 「痛惜의念」이아는 것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금주 지부장은 "일본인과 재일교포 등으로 구성된 일본에 있는 소송촉진회측의 협조를 얻어 소송을 제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해 「痛惜의念」이아는 것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금주 지부장은 "일본인과 재일교포 등으로 구성된 일본에 있는 소송촉진회측의 협조를 얻어 소송을 제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해 「痛惜의念」이아는 것이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유구